

全氏五大綱領

上奉祖先
下育後生
相互親睦
不計其功
不謀其利



全氏宗報

2011 (환성군)
2029

宗務指標
和合團結
信賴造成
言行一致
親切奉仕

3월 31일 (목)

제84호 (속94호)

발행 : (사)全씨중앙종친회 / 발행인 : 全永鐸 / 편집주간 : 全遇學 ⑩ 130-867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53-1 / TEL:3293-2725 FAX:3293-5799
http://www.jeonc.org / 인쇄처 : 전통족보문화사 / TEL : 738-2114 (청량리1동 50-1)

2011년 新年 交禮會 개최

2011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0-1(왕산로 253-1) 전씨회관 4층 회장실에서 종친회 고문과 중진들 20여명이 참석하여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永鐸 회장은 모든 종친회 업무를 遇學 상근부회장에게 위임하고 부채상환에 노력하였으며 건강에 관한 많은 서적을 발행한 世烈박사를 소개하였다.

이어 載範의장은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부채상환에 크게 노력하여 잔액 4,000만원만 남기고 있음을 큰 성과라고 칭찬하였다.

遇學 상근부회장은 신년도 종친회 중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첫째 종친회 중요 업무는 종무지표 화합단결을 위해 종친 간 화합을 도모하고 선조 향사에 적극 참여하며 종인들 애경사를 같이하고 미조직 지구 종친회 조직 확대를 기하며 늦은 감은 있으나 이문동 숭인재 도색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현 청량리 전씨회관 마련을 위해 생긴 부채 상환을 위해 건축재정 운영과 발전 성금 헌성을 통해 회기중에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빚 없이 다음 회장에게 넘기고자 노력하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

△ 부채 상환내용

적 요	용찬회장인계 (2008. 8. 1)	현재 (2011.1.7)	상환액
장호원농협	360,000,000	40,000,000	320,000,000
임대보증금	345,000,000	492,000,000	-147,000,000
계	705,000,000	532,000,000	173,000,000

• 1차년도 2010 6월 ~ 12월 : 대동보 편찬기본 계획
• 2차년도 2011년 ~ 2012년 : 각파별 수단업무
• 3차년도 2013년 ~ 2014년 : 보책편집, 인쇄, 반질

넷째 2011년 금년은



◇ 신년 교례회 개최 모습

셋째 제4차 대동보 편찬 추진 호주제 폐지로 인한 동성동 본 혼인허용, 종통유지 위협등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제3차 대동보 편찬시 3분된 대동보 편찬을 시정하여 명실상부한 대동보 편찬을 위해 지난해 9월29일 파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대동보 편찬을 결의하고 대동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찬업무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협의회에서 敬遇 고문은 수하동 건물을 매각하고 현 청량리 회관을 마련하여 역세권에 100억을 흥가하는 재산 증식에 공로가 큰 분으로 힘을 합하면 하늘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부채 상환의 공로를 치하하며 집행부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承杓 의원은 제4차 대동보 편찬에 노력바라며 투명하게 작업하여 말썽없는 깨끗한 대동보 편찬을 바란다고 하였다. 종친회 발전에는 청장년들의 협조와 적극 참여가 기대된다. 며 덕담으로 환담하였다.

書院 春季 享祀日

寒泉書院	陰 3月 10日	二忠公	4月 12日
鷺潭書院	陰 3月 中丁	管城君 松亭公 沙西公	4月 22日
蘇川書院	陰 3月 中丁	竺山府院君	4月 22日
玉洞書院	陰 3月 上丁	沙西公	4月 12日
迎勝書院	陰 2月 中丁	四樂亭公 (轍)	3月 23日
忠烈祠	陰 3月 中丁	忠臣公 (起業)	4月 22日
箕溪精舍	陰 3月 3日	仁 (箕溪主人公)	4月 5日
箕溪精舍	陰 3月 3日	以性 (雲溪公)	4月 5日
鷺두장군	陽 4月 24日	琫 準	4月 24日
原泉書院	陰 10月 12日	原泉公 (原泉亭)	11月 7日
寒泉書院 秋享	陰 9月 15日 후 둘째 일요일	二忠公	10月 23日

그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격이 높은 나라 되어야…

불법파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몇 달 전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서 경찰을 향해 죽창을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시민이 경찰을 죽창으로 찌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全氏중앙종친회장
全 永 鐸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당과 야당을 떠나, 좌파든 우파든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의무다.

우리는 언제나 임금투쟁만을 일삼고 있다. 임금을 올리기 위해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한다. 마치 어린아기가 투정 부리는 것과 같다. 회사야 어찌되든 말든 무작정 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이 일본을 제외하고 제일 높다고 한다. 고임금은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임금이 높아지면 제조 원가가 높아지고 기업들은 어려워진다. 또 덩달아 물가도 높아지게 된다. 눈앞에 이익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경영여건에 따라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저 임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다. 장래가 밝은 그런 미래지향적인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자를 아껴서는 안된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이지 감정만 앞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철의 여인으로 유명한 영국의 대처 수상은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민 투표까지 한 일이 있었다. 자주 파업이 일어나 국가가 불안해 해결책을 찾어야 했다. 그래서 국민 투표로써 의견을 물었다. 어쩌면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좋은 정책을 배워야 한다.

데모나 불법파업은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공기업이 파업하게 되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실생활에 불편을 받게 된다. 당장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서민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는 그 이면에는 임금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파업의 주목적이다.

특히 공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 수준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들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다. 자신보다 더 힘든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다.

〈2면에 기사 계속〉

雪景有感

辛卯 正月

고문 全 敬 遇
(전씨중앙종친회
제19, 20대 회장)

炭川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14層 書齋에 서 春夏秋冬 季節이 바뀔 때마다 自然의 偉大한 攝理에 感服하면서! 내가 文筆家나 詩人이라면 珠玉같은 글이 나올터인데 하고 自歎한다.

今年에는 類例없이 눈이 많이 와서 雪景에 놀라 卽興의으로 昨春花如雪 今冬雪如花 라고 그 感動을 중얼거려 보았다.

花朝月夕 春風秋雨 滿樹紅葉 좋은 景光을 만날 때마다 나이를 잊고 즐기다가도 점점 서리같은 毛髮이 불어 날 때마다 人生의 無常함을 느낀다.

이러한 感想을 담아 짧은 識見으로 所感의 一端을 七言絕句의 形式을 빌려 다음과 같이 試筆해 본다.

昨夜西風動地來
今朝萬目玉林開
寓京七十年年老
如此景光幾度迴

어제밤 서풍이 요란스럽게 불더니
오늘 아침 눈에 가득 금이 펼쳐졌네
서울살이 칠십년에 해 마다 늙어가니
이 같은 좋은 광경 몇 차례나 돌아올까?

<1면에 기사에 이어>

우리는 외국인 노동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처음 간 기업체에서 잠깐 일을 숙련시키고 나면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 가니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고 나면 집단으로 이탈하면서 중소기업체가 입는 타격은 매우 크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조건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결코 사람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부족해서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것은 아니다. 인력이 남아도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이 많은 대기업만을 선호하고 있다. 국내 근로자들이 3D업종이라고 외면해 인력 수급난을 겪는 상황에서 숨통을 트여줬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나름대로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처음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선박회사에 취업을 했었다. 그러나 선박회사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배에서 일을 해야 하니 할 수 없이 숙식도 제공하고 임금을 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서 지금은 많은 기업체에서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숙식을 제공하고도 이제는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해 버린 것이다.

이웃나라인 중국은 우리 인건비의 10분의 1수준밖에 안 된다. 중국, 필리핀,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있다. 처음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우 문제를 통일 시켰어야 하는데 들쭉날쭉 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도 조금만 임금을 더 주는 곳이 있으면 바로 옮겨가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인건비를 주고 외국인을 써야 한다면 굳이 외국인이 왜 필요하겠는가?

그건 안될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해도 미친가지로 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들의 3분의 1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이 제도가 잘못 정착되어 오히려 국내 근로자들만 설 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생기는 것이다.

또 불법체류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출입국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는 규칙을 바로 세워서 엄격한 규제와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법 자체를 엄격히 실행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청과 협력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어느 업체에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문제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관리감독이 가능한 일이다.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우리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진행해주길 바란다.

金氏宗報

제4차 全氏대동보
편찬위원회 총회 개최

◇ 전씨대동보 편찬위원회 총회 광경

지난 3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3-1(청량리 1동 50-1) 전씨회관 지하 1층 맘모스 회관에서 제4차 全氏대동보 편찬위원회 결성총회에 63명의 편찬위원이 전국 각지에서 영하의 꽃샘추위를 무릅쓰고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濟國 사무국장의 참석인원 보고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다음 회장 인사에서 遇學 상근부회장이 永鐸 회장 불참으로 결성총회를 대행하게 됨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족보 편성의 당위성에 따라 진지한 협의로 전원이 참보하는 명실상부한 대동보가 이룩되기를 기원하며 회관 이전으로 인한 부채가 현재 은행에 2,000만원과 임대보증금 4억9천2백만원으로 총액 5억 1천2백만원을 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빚없는 종친회를 물려 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다.

進變 간사는 경과보고에서 지난해 5월부터 준비위원회 구성으로 대동보 편찬 준비를 마치고 과 대표회의를 거쳐 채택하고 대의원회에 보고 결의하였다고 하였다.

제1의안 :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전형위원 9명, 정선(濟國) · 옥산(錫俊) · 성산백(炳允) · 평강(載範) ·

옥천(遇謙) · 완산(台永) · 용궁(進燮) · 죽산(萬植) · 성산군(東昱)에 의하여 10분간 산회후 위원장 龍燦 부위원장 載國, 在道禹煥, 寅鳳, 北烈, 賢玉, 東昱, 錫俊 8명과 감사 正原, 正徹을 선정 위촉하였다.

위원장 龍燦가 등단하여 의안을 심의하였다.

제2의안 : 대동보 편찬위원회 회칙을 상정 제안 설명과 동시 축조 심의를 거쳐 회장 부재시 부회장 대행은 연장자가 하는 관행에 따르기로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3의안 : 대동보 편찬 내규와 대동보 수단 내규를 동시 상정하고 책자 족보를 기본으로 하고 CD 전자 족보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다음 편찬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키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4의안 : 대동보 편찬 사업수지계산서 안을 상정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3차 대동보에 준한 가정 예산임을 감안하여 총수입지출액 987,554,000으로 무수정 통과시켰다.

이상 2시간여의 회의 끝에 폐회선언 되었다.

會長人事



상근부회장 全遇學

常勤副會長 全遇學입니다.

오늘 영하의 꽃샘 추위속에 전국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 종친회의 가장 큰行事인 제4차 全氏大同譜 편찬위원회 결성총회에 회장님께서一身上의 사정에(病院)에 의하여 참석치 못하고 제가 代行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4차 대동보 편찬은 호주제폐지, 동성동본간 혼인허용, 종통유지 위협 등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제3차에서 3분(天安派譜, 旌善派譜, 大同譜) 된 대동보 편찬 등을 시정하기 위한 대동보 편찬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진지한 협의로 모두가 參譜하는 명실상부한 대동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관 이전시 負債 債還은 전임 龍燦 회장 인계금액 장호원농협 3억6천만원, 임대보증금 3억4천5백만원, 총계 7억5백만원을 회장님의 노력과 여러분의 발전기금 헌성으로 오늘 현재 장호원 농협 부채 2천만원, 임대보증금 4억 9천2백만원, 총계 5억1천2백만원이 남아 있음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9기 현종친회가 빚 없는 종친회를 다음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끼처럼 지혜롭게 종친회 발전 초석 다지자

우리 모두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담은 신묘년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아 왔다.

새해에는 풍성한 기쁨속에 우리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지난해 우리 종친회의 발전을 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50만 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열악한 재정 상황속에서 집행부의 긴축 재정 운영으로 부채 상환에 최선을 다하여 현재 4천만원의 부채를 남기고 있음을 발전기금의 헌성과 종인 모두의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된다.

2011년은 우리 시조 환성군의 재숙소인 숭인재실의 도색과 제4차 전씨대동보 편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제9기 종친회 업무의 정확한 처리 종결, 제23대 중앙 종친회장의 선임, 제10기 대의원회 및 이사회 구성 등 중대한 업무의 실천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종친회” 구성으로 토끼처럼 지혜롭게 발전 초석을 다지고 빛 없는 종친회로서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1. 선조의 얼을 찾아

- 1) 선조의 유적지 발족 탐방
지구종친회 행사 수행 권리
- 2) 선조 향사 적극 참여
각 과조 및 현조 향사

2. 종친회 화합단결 활성화

- 1) 지구종친회 행사 참석 격려
- 2) 인근지구 종친회간 단합 행사 권장
- 3) 미조직 지구 종친회 조직 활성화
- 4) 종친간 친목 단합 도모 행사
- 5) 종인의 애경사 같이하기
- 6) 발전기금 자진 헌성

3. 기본업무

- 1) 복무기강 확립
- 2) 업무처리의 연구적 발전적으로
- 3) 긴축재정 운영
- 4) 부채상환 노력(4천만원)
- 5) 물자 절약
용지절약(복사지 이면지 사용)
- 6) 에너지 절약
전기 한 등고기, 냉난방비 절약,
전기히타 사용 않기, 내복입기
- 7) 과 대표 회의 개최
- 8) 지구종친회장 회의개최
- 9) 숭인재실 도색

4. 제4차 全氏대동보 편찬

- 1) 대동보 편찬 기본 계획 및 위원회 구성
- 2) 과별 수단업무 수행 및 보책편집 인쇄 반질
- 3) 편찬 업무 계획
 - 1차년도 2010년 6월~12월
: 대동보 편찬 기본계획
 - 2차년도 2011년~2012년
: 과별 수단업무
 - 3차년도 2013년~2014년
: 보책 편집, 인쇄 반질

5. 제10기 종친회 구성

- 1) 제9기 종친회 업무의 정확한 처리 종결
- 2) 제23대 중앙종친회장 선임
- 3) 제10기 대의원회 및 이사회 구성

‘전통 肅祭禮 문화의 현황과 과제’ 학술회의 “예법이란 때가 중요한 것, 당시 사회 禮俗 적극 수용하라” -朱子



◇ 의성김씨 청계종택의 불천위제사 모습

지난해 9월 16일(목) 오전 10:30분부터 18:00까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200여명의 전통 상제례에 관심있는 유교인이 모여 ‘전통 상제례 문화의 현황과 과제’ 학술회의에서 한국사회 전통 제례의 경험을 통한 제례의 변화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국국학진흥원(원장 : 김병일)과 세계유교문화축전조직위원회(위원장 : 이윤철)가 이 학술대회를 마련한 것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의례를 우리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李容泰 박약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로 안동지역이 한국 유교의 제례와 상례의 주거지이며 ‘제사는 영원토록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쇠퇴되어가는 이유는,

첫째, 개신교에서 제사는 지내지 않아야 한다고 초기 전도에 의한 것이나 천주교는 인정하고 있으며 목사들 모임에서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오고 있으며,

둘째, 부인들이 복잡하고 귀찮아 하나 주문(注文) 등 대체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현대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했을 제사의 문제를 압축해 놓은듯한 다음의 사례는 정종수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직접 겪은 이야기이다.

- 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설, 추석 차례 및 삼대봉사(三代奉祀), 차례때는 중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순서로 지방을 새워 놓고 간장, 나물, 기본제수만 놔두고 모든 제물을 새로 진설함.
- ② 부모님이 돌아가신후(1985, 1987) 6남1녀중 장남이 제사를 물려 받음.
- ③ 1999년 형제들이 제물 준비를 나눠 맡기로 함. 명절 차례도 3대 여섯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진설도 한번으로 줄임.

- ④ 2003년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시자’고 합의하고 기제사는 장남, 차례는 나

머지 형제가 순서대로 모심(윤회봉사)

- ⑤ 2006년 3대 여섯분의 기제사를 부친 기일로 합해 ‘모듬제사’로 모시기로 함.

이와같이 상·제례는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정종수 관장은 ‘모듬제사’ ‘윤회봉사’와 함께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사위나 외손이 장인 장모와 외조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김시덕 박사는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서도

- ▲ 양복에 삼베 두건을 쓰더라도 상복을 입는 것.
- ▲ 부고와 감사편지를 보내는 것.

▲ 밤샘 분향과 절

- ▲ 문상객 접대등 전통상례의 흔적이 남아 있다. 고지적 한다.

학술회의 다음날인 17일에 경북 안동에 있는 조선중기 문신 이우당 권환(1580~1651) 종택에서 불천위 제사를 참관하는 기회를 갖는다.



〈해석〉 全壹門繁盛(전일문번성)

全氏는 한 자손이니 다들 번성하라.

-필자 : 全乙洪

경력

-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대구 경북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대구향교 사서삼경반 10년 근학상 수상



우리 선조의 유적

贈左議政 謐忠簡公 沙西先生 神道碑銘 井序



◇ 충간공 사서 선생(휘식) 영정

贈左議政 沙西全公이 卒하신지 17년에 第二子인 前四山監役 克恬이 翳孫 岳를 시켜 故同樞 黃戾氏 行狀을 가지고 尚州에서 北쪽 千餘里를 달려 와 漢陽 사는 나 趙納에게 銘을 請하여 말하기를 나의 先人께서 朝廷에 벼슬 할 때에 어른에게 私情을 입은 것이 오래입니다. 敢히 先人の 魂靈을憑藉하여 어른에게 不朽의 글을 請한다 하거늘 나 紅이 자리를 떨치고 禮를 하고 나이 九十에 가까워서 筆硯을 잡기 어려우므로 여러 차례 辭讓하였으나 不得함으로 行狀을 읽다가 半이 못되어 책을 덮고 歎服하여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듣기로는 南쪽의 士友가 沙西公이 世上에서 높이 행한 일이 두가지라고 稱頌하더니 이제 行狀을 보니 진실로 그러하다.

光海 戊申(1608)間에 濟瀕한 무리들이 鄭仁弘을 推戴하여 마음 속 主人으로 삼아 그 力이 불꽃처럼 타올라 사람들이 敢히 콧 김을 거스릴 수 없었으니 다치면 부서지고 犯하면 태워 버리니 말을 할 수 없었으나 公은 能히 깜짝할 사이에 奮然히 辨舌로 그 잘못을 뽑아서 梧里政丞의 正論을 펴니 陳忠肅이 章惇을 떠바치는 것이 미치지 못하였다. 全遼東이 오랑캐에 함락당하므로 中國에 가는 길이 變하여 航海하게 됨에 受命한 使臣이 前後로 魚服에 葬事함이 서로 이어졌다. 公이 이 때에 年이 六十이 넘었어도 조금도 늙었다 함이 없고 少壯들 보다 먼저 행하여 고래 물결 밟는 것이 健康하고 씩씩함 같고 죽고 사는 것을 가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이 하니 謝安石이 배 타는 것을 겁내지 않아함을凌駕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中國 史家가 말하기를 朝鮮 使臣 全湜이 來朝하다 라고 特筆하니 이것은 李潤慶의 이름이 嘉隆錄에 오른 後로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傳하여 稱하기를 죽어도 썩지 아니하는 것이 세 가지라 하니 公의 行誼가 어찌 功과 言行에만 그치겠는가. 그럼으로 太史氏가 장차 大書特筆하여 한번만 쓰고 말지 아니할 것이다.

冷淡한 내가 어찌 足히 公의 不朽한 功業에 經重을 말하겠는가마는 돌아보건데 托名顯刻으로 後世에 傳하는 것이 나의 生色이 많다.

대개 公이 立朝 五十年에 歷職이 三十번이 넘도록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內外職을 莫論하고 일하는 바와 말하는 바가 모두 忠直에서 나와 다 足히 世上에 스승이 되니 士友가 所稱 世上에 높은 行實이라 함은 特別히 그 큰 것만 舉論한 것이다.

公이 出仕하기 前에 宣祖朝 名相인 金應南이 公을 薦舉하여 連原察訪으로 除授하니 따스하게 撫摩하여 敵한 驛舍가 完全하게 되니 道臣이 公을 才操 있다 하여 可興을 委任하니 稅金을 거두어 倉庫를 채워서 侵犯하는 倭賊에 損失됨이 없고 또 湖南 軍糧을 供給하는 命令을 하니 이를 完遂하였다.

宣朝 三十二年 己亥(1599) 禮賓寺 直長에 輔補하였으나 不就하였고 癸卯에 及第하였으며 承政院 注書에 選入되어 柄相이 尊號 議論을 倡說함에 三司가 아침만하여 公이 自己들과 다르다고 미워하니 드디어 徵兆를 봐서 公이 일어섰다.

丁未에 典籍에 陞進되었고 戊申에 騎省郎으로 薦을 받았다가 도리어 忠清道 幕僚가 돼서 邊民을 刷新케 할 때 거짓을 없애고 참되도록 힘이甚히 밝았다. 監司를 代身하여 滯留된 訟事를 處理하여 책상 위에 公文書가 남음이 없도록 하였고 光海 元年 己酉(1609) 年에 禮部員外郎을 拜하고 正郎으로 陞進할 때에 公論으로 公을 銓曹에 두고서 힘쓰면서 公으로 하여금 主務郎宮을 찾아보라 하니 公이 웃으면서 對答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일이 里루위 지지 아니하였다.

辛亥에 蔚山 判官을 除하니 風化가 大行하였으며 明年에는 病으로서 金郊에 就任하지 아니하고 全羅都事로 나가 있을 때에 光海가 政亂하여 蕃倫이 무너졌음으로 公은 官에 머물기를 즐겨하지 않고 물러나 鄉里에 숨어서 鄭愚伏, 李蒼石과 같이 山水間을逍遙하니 世上 사람이 商山三老라 하더라. 光海十一年 己未와 庚申兩年에 內外喪을 當하여 易戚을 다하였으며 侍墓로終制하였다.

癸亥에 仁祖大王이 宗社를 平安하게 하고 農村에 있는 善良을 부를 때 公을 禮曹正郎兼 記註官知製敎를 拜하였다가 곧 이어 弘文館에 錄하여 修撰校理를 拜하니 學士 任叔英이 일찍 말하기를 經筵官에 古今을 通한 이는 鄭經世요 事理에 通達한 이는 全湜이라 하였다. 오래 있다가 典籍을 經由하여 司憲府掌令에 拜하니, 舉事에 彙劾함이 避한 바가 없고 甲子에 逆賊 李适이 亂을 일으킴에 公이 司僕寺正으로 임금을 모시고 南으로 天安에 이르니 執義를 拜하였다.

廷平君 李貴의 軍務에 律을 어긴 罪와 元帥 張晚의 賊을 追擊함을 늦춘 律을 論하니 晚의 幕下武輩가 모두 主將의 罪가 없다고 부르짖어서 失言을發하니 公이 臺門에서 꾸짖어 말하기를 宗祀로 하여금 避難하게 하고 父

로 宮闈을 떠나게 하는 것이 누구의 罪인가. 너희들은 또한 임금의 臣子인데 敢히 이렇게 하겠는가 하니 다 혀를 깨물고 입을 봉하더라. 三月에 禮賓寺正을 經由하여 通政에 오르고 兵曹叅議를 拜하니 임금을扈從한 労苦를 賞함이더라.

冬에 代言을 拜하니 임금이 金公諒에게 折衝將軍을 내리니 公이 마지하여 돌아오니 公論이 많았다. 乙丑에 左丞旨로 옮기니 辭하고 護軍을 經由하여 刑曹叅議하다. 使臣으로 中國에 朝會하니 中國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公의 德器가 있었고 登州軍門의 武士들도 바라보고 더욱 敬禮를 이루더라.

明年에 復命하고 또 明年 丁卯 2月에 奴가 변방을 뛰어 黃海道를 侵犯하거늘 行在所를 江華島에 여니 奴使 劉海가 奴書를 가지고 와서 임금에 責이 盟誓할 것을 要求함에 廟堂에서 和同할 것을 議論하니 公이 抗疏하여 和事의 그릇됨을 指摘함이 其하였다.

禮曹叅議를 하고 조금 後 大司諫을 拜하니 六條箚를 進言하되 納諫諍去偏私 修軍官勿軍政 減軍議 譏察夫를 하지 말라 하다 사람이 나라를 病들게하고 亂을 일으킬 것을 알지 못함은 아니지만 勳貴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는 者가 없으되 公이 홀로 그 眞相을 조금도 틀림없이 말하니 듣는 자가 놀라더라.

庚午, 辛未 兩年間에 禮部左侍에 � 徵來함이 네번이요, 東西銓議가 됨이 두 번이오, 諫長됨이 네번인데 公이 문득 말하기를 老病하여 朝端에 오래하지 못하겠으므로 外職求하기를 간절하니 드디어 慶州府尹이 되어 治政함이 참으로 汲淨黯의 清淨함을 얻어서 집에 누워서도 그 境內가 化하더라.

任期를 마치고 돌아오니 百姓이 詩를 지어 돌에 새겨 稱頌하더라. 甲戌에 大司諫을 拜하니, 옛적 우리 先王이 經

國典을 만들어서 비록 王子 大君이라도 그 法을 어길 수 없었는데 이제 麟坪大君이 衣服과 器用이 너무 奢侈하니 先王의 法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반가히 받아들이고 또 말하기를 紀綱이 점점 무너져 宮闈가嚴하지 아니하다 하고 또 上訴하여 時政의 得失과 人主의 好惡과 天災民怨을 말함이 條理있는 累百言이 다 正確하고 또 임금을 勸하여 옛적 배움을 익히고 다하고 다시 새로 얻는 것을 더 하라 하니 참으로 儒臣의 말이다.

前職을 辭하니 兵曹叅議를 遞拜하고 돌아와 都諫하고 禮議를 拜함을 辭하니 歸鄉토록 許諾하였다.

丙子 正月에 仁烈王后 妻에 奔哭하고 闕下에서 命을 謝禮하고 돌아오니 大司諫 副學을 拜하였는데 다 病으로서 辞하다. 12월에 西事が 急하여 임금이 南漢城에 避하니 公이 義兵을 謂集하여 丁丑에 危圍를 解除하니 임금이 還都하다. 公이 곧 달려서 물으니 이에 副學의 命이 있었는데 굳이 謂禮하니 임금이 側席으로 請하여 下敎하기를 들으니 鄉이 倡議하였다 하니 내가 甚히 嘉尚히 여긴다 하고 慰勞하여 壴유하였다.

또 말하기를 嶺軍이 두번 負來한 뒤에 集合함은 진실로 嶺南 士大夫가 아는 것이 君보다 뒤지지 않음이 많으니 湖南이 能히 부끄러움이 없겠나 하니 公이 울면서 對答하기를 老臣이 病하니 能히 軍服을 갖추지 못하여 임금이辱되면 臣下가 죽는 義를 저버리고 이제 文石의 뜰에 오르니 낮이 十重이나 鐵甲한 것 같다 하고 因해 말하기를 古人이 말이 있으되 大難에 臨하여 捷내지 아니함은 聖人의 勇猛이라 하니 聖上이 홀로 前古에 帝王이 나라를 罷하고 나라를 保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5면에 계속)

新刊紹介

■ 내가 본 붉은 넥타이 全영일(명예 법학박사) 지음
-부제: 붉은 넥타이에 가려진 북한의 본질-

우리는 TV나 신문 잡지를 통한 북한 관련 기사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목에 “붉은 넥타이”가 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들이 조선 소년단원이다.

붉은 넥타이는 첫째 피를 흘려 세워진 공산 혁명가의 상징이며, 둘째 김일성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며, 셋째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다음세대 수비대로 육성되는 조선 소년단의 상징물이다.

“붉은 넥타이”로 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적화통일 전술에 우리 국민중 일부 친북 주체사상 파들이 동의하게 되는 것을 역대 정부가 북한 본질에 관한 정보를 이들에게 정확히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북한 법문을 인용하여 북한의 속임수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립으로써 그들이 친북 가면을 벗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희망하면서 이 글을 쓴다.

<4면 신도비 기사에 이어>

願컨데 스스로 막지 말고 스스로 安逸하지 아니 하면서 날로 群臣과 더불어 興亡의 道를 講하소서 하니 大概 出城함으로부터 殿坐함이 들음으로 公의 말이 이러 하였다. 吏曹叅議를 拜하였다가 數月에 參判에 特陞하여 嘉善 階資를 加하니 辭讓하여도 不許하니 乞暇하여 先墓를 移葬하고 戊寅에 세 번 諫長에 拜하였고 한번 憲長에 옮기고 禮曹叅判 國子 大司成으로 바꾸고 上이湖南軍이 犯律함으로 南漢에 役事할 것을 命하고 3월에 또 巡檢使로 三道舟帥를 整頓토록 命하니 公이 다 執行하고 非時에 또 上箚하니 그 條目이 八인데 聖躬을 調養하고 實德을 힘써 닦고 奢侈한 風習을 改革하고 言路를 넓게 열고 紀綱을 嚴肅히 하고 節義를 높이 奬勵하고 百姓의 隱痛을 勸恤케 하고 內需를 革罷하라 하니 모두가 나라를 다스리는 梁肉과 藥石이 되니 識者가 嘆服하더라.

그후 兩年에 府院長을 拜함이 세번인데 모두 辭하니 그때 大臣이 全某는 德聖이 본디 높으고 年令이 이미 늙으니 마땅히 急히 크게 쓸 것을 建議하니 公이 듣고 더욱 謙退하더라.

壬午 2월에 上이 特別히 資憲을 加하여 知中樞府事兼 同知經筵春秋館事를 除授하니 李相 聖求의 啓를 因함이더라. 公의 나이 비로소 滿 80임으로 大司憲에 拜하니 赴任하지 않고 是年 11월 初7일에 尙州城外 집에서 考終하니 許告가 들림에 上이 朝會를 걷고 贈儀를 주고 賜祭함을 禮儀와 같이 하고,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兼 判義禁府事 世子 貳師知經筵 春秋館事 五衛都摠管에 贈職하고 그 後 長子 克恒의



◇ 상주 사서 全湜 신도비

原從功으로 左議政兼 領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子傅를 加贈하다. 明年二月에 尚州 西弩 柏田山 先兆下 异坐原에 葬事하니 遺命이다.

公의 謹는 涩이요, 字는 淨遠이요, 沙西는 號이다. 沃川에 系出하니 그 先代에 謹學浚이 麗朝에 벼슬하여 領同正이 되고 傳하여 太子 中允 孝格과 刑部侍郎 大富와 民部典書 侑와 版圖判書 淑에 至하여 비로소 크게 들어나다.

公의 高祖는 應卿이니 贈吏曹叅判이

서始發하였다.

公이 사람됨이 潔白하고 長大하고 和平하여 度量이 있고 마음 가짐이 오직 義와 道로서 비록 險하고 어려움을 當하여도 意氣가 球도 變함이 없이 一生을 마치니 이로서 그 死後에 위로는 緇紳과 大夫로부터 아래로는 閭巷의 學究輩에 이르기까지 嗟惜하지 않는 이 없고 또 宰相이 되어 生民이 恩澤을 입게 하니 公의 德望을 이에서 보겠다.

아! 公은 나의 丈人 行이다.

전강 과학 코너(2)

▣ 몸 안에 요산 많으면 고혈압·신장병·지방간 생겨

통풍의 원인으로만 알고 있던 요산이 고혈압·신장질환·지방간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현준 삼성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혈중 요산 농도는 7ml/dl미만이어야 정상”이라며 “요산 수치가 높으면 여러 질병이 생길 위험이 많고 요산수치가 낮으면 질병 위험이 덜한 상관 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최신 견해”라고 말한다.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 육류와 알콜 섭취를 줄여서 요산 수치를 낮춰야 한다.



◆ 요산 관리는 식이 요법으로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도 심한 증상이 없으면 약물 치료 등을 하지는 않는다. 최재경 교수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물은 신장 손상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통풍이 심하거나 급성신부전이 생길 위험 등이 있지 않는 한 고혈압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식이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체내에서 요산을 생성하는 육류와 등푸른 생선등의 섭취를 줄이고 맥주 등 술은 요산의 배설을 방해하기 때문에 끊어야 한다.

이상현 교수는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하면 신장의 요산 배설작용이 활발해져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된다”고 말했다.

한자공부 (6)

“한자 공부는 국어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사고력 신장, 인성 및 문화정체성의 바탕이 된다.”

▣ 사자성어(四字成語)

① **切磋琢磨**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절 차 탁 마 굽을 절, 갈 차, 다듬을 탁, 갈 마

② **名山大刹** 이름 난 산과 큰 절
명 산 대 찰 이름 명, 메 산, 큰 대, 절 찰

③ **千軍萬馬** 아주 많은 수의 군사와 군마를 이르는 말.
천 군 만 마 일천 천, 군사 군, 일만 만, 말 마

④ **意氣投合** 마음이나 뜻이 서로 맞음.
의 기 투 합 뜻 의, 기운 기, 던질 투, 합할 합

⑤ **電光石火** 매우 짧은시간 재빠른 움직임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전 광 석 화 번개 전, 빛 광, 돌 석, 불 화

⑥ **犬馬之勞** 윗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
견 마 지 로 개 견, 말 마, 갈 지, 일할 로

⑦ **苦盡甘來** 고생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고 진 감 래 쓸 고, 다할 진, 달 감, 올 래

⑧ **不遠千里** 천리 길도 멀다고 여기지 않음.
불 원 천 리 아닐 불, 멀 원, 일천 천, 마을 리

公이 나를 어리다 아니하고 남달리 사랑하였다. 不佞이 日本에 使臣갈때 뜻하기로 어른 門下에서 떠나는人事를 드릴까 하였더니 도리히 靈坐下에 哭拜하니 슬픔이 어찌 可히 없겠는가.

公이 再娶하였는데 前配는 江華崔氏府事 巨源의 四代孫인데 일찍 죽고 後配는 南陽洪氏 士人 天叙의 女니 三男一女를 生하였는데 克恒은 文科正郎 贈都承旨에 文學으로 著名하였으나丙子胡亂에 죽고 克恬은 進士로 前監役이고 克衍이며 女는 黃德柔에 시집가니 司憲府 監察이요, 側室에 三男二女니 克忧과 克愬과 克愬이요, 康錄는 生員이요, 柳之洙며 克恒은 無嗣인데 餘男은 崇이며, 克恬은 二男四女를 두니 嶧과 嶧니 克恒의 뒤를 잇고 女는 李曠과 李暉는 別檢이요, 金學基는 進士요 餘는 幼하며 克衍은 一男을 두니 懿이며, 成은 克愬의 出이요, 厥은 克愬의 出이며 黃德柔는 三男三女니 霽과 霽요, 霽이며 正言 洪汝河와 士人 成錫夏는 其婿이고, 餘는 어리며 康錄가 二男二女를 두니 后學과 世學이요, 女는 幼하며 嶧과 洪汝河는 子女가 있으므로 幼하다.

銘曰 아름답다 우리 公은 世上에서 누구가 짹하리요 仁에는 머리에여서 行하고 義에는 안아서 處하고 平穩하시는 辭讓하고 病에는 반드시 急하게 하고 조심하고 安靜해서 壽하는데 이르고 强하고 굳센데 物을 容納하니 슬프다 이런 사람을 그 可히 다시 今日에 보겠는가.

癸未 三月
正憲大夫 原任知中樞府事
趙納 撰

第4次 全氏大同譜編纂委員會 會則

第1章 總 則

- 第1條：名稱
本會는 全氏大同譜 編纂委員會(이하 本會라 한다)라 한다.
- 第2條：所在地
本會는 中央宗親會 傘下에 둔다.
- 第3條：目的
本會는 中央宗親會 定款 第1章 第4條 第6項의 規定에 依하여 大同譜編纂 事業을 遂行하는데 目的이 있다.
- 第4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第4次 全氏大同譜 刊行事業

第2章 會 員

- 第5條：會員의 構成
本會 會員은 中央宗親會長이 委嘱한다.
- 第6條：會員의 權利
本會 會員은 本會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 第7條：會員의 義務
1. 本會의 會則 및 諸規程의 遵守
2. 本會 諸般決議事項 履行

第3章 任 員

- 第8條：任員의 定數
1.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委員長 : 1人
2) 副委員長 : 8人
3) 監事 : 2人
- 第9條：任員의 選出
1. 委員長, 副委員長, 監事는 編輯委員會 總會에서 選出하여 中央會長이 委嘱한다.
- 第10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本會 事業期間의 限時으로 하되 事情에 따라 改選할 수 있다.
- 第11條：任員의 職務
1. 委員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의 議長이 된다.
2. 副委員長은 委員長 不在 時에 委員長을 代理한다.
3. 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本會의 財政 및 一般 業務에 關한 監查
2) 監查結果를 總會에 報告하는 일
3) 監事는 總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4章 總 會

- 第12條：召集
1. 定期總會는 年1회로 한다.
2. 臨時總會는 必要時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 第13條：機能과 議決
總會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任員選出에 關한 事項
2. 事業에 關한 事項
3. 其他 重要한 事項

第5章 業務 推進委員會

- 第14條：構成
이 推進委員會는 本會 業務를 보다 效率적으로 推進하기 爲하여 各派 代表를 當然職으로 하고 各派代表가 각 1人式을 推薦한 사람을 委員長이

委嘱하고 委員長은 議長이 된다.

- 第15條：召集
본 委員會는 必要時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第16條：機能

1. 本會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2. 本會 예산, 결산에 關한 事項
3.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事項

第17條：定足數

- 본 推進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催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可否 同數일 때는 委員長이 決定한다.

第6章 財政

第18條：事業費 充當

1. 各下錢(收單金)
2. 譜冊代
3. 其他收入

第19條：會計年度

-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일부터 12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20條：收入支出豫算과 決算

- 本會의 當該年度 事業費는 每會計年度 開始 1個月 前까지 編成하고 決算是 會計年度 마감 후 2個月 以內에 業務推進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21條：監查

- 監查는 年 1回 以上 本會의 業務 및 會計監查를 實施한다.

- 第22條：業務組織과 運營
本會의 業務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業務推進委員의 議決을 거쳐 內規로 定한다.

第7章 附 則

- 第23條：이 內規는 必要時에 改正할 수 있다.

- 第24條：이 委員會는 編纂事業의 終了와 同時に 解體한다.

- 第25條：이 內規는 漏落된 事項은 一般 慣例에 따른다.

- 第26條：本 會則은 2011年 3月 10일부터 施行한다.

제4차 全氏 대동보편찬 소위원회 개최



◇ 제4차 대동보편찬 소위원회 광경

지난 2월 23일(수요일) 오전11시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전 씨회관 4층 회장실에서 대동보 편찬 위원회 총회 개최 대비를 위한 각종 내용을 점검하고 미비된 점을 3월 2일(수요일) 총 점검하였다.

龍燦, 東昱, 台永, 進燮, 遇學, 濟國 위원이 총회 회순에 따른 내용을 심의 점검 하였다.

먼저 대보사 朴鍾佑 상무로 부터 전

자족보(인터넷)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제1의안 임원선출(정부위원장, 감사)내용을 협의하고, 제2의안 중앙종 친회 정관 제1장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동보 편찬위원회 회칙과 대 동보 편찬 내규와 대동보 수단 내규 그리고 제4차 대동보 편찬 사업 기본 계획안과 수입 지출 계산서를 점검하였다.

東海지구 종친회 총회 개최 장학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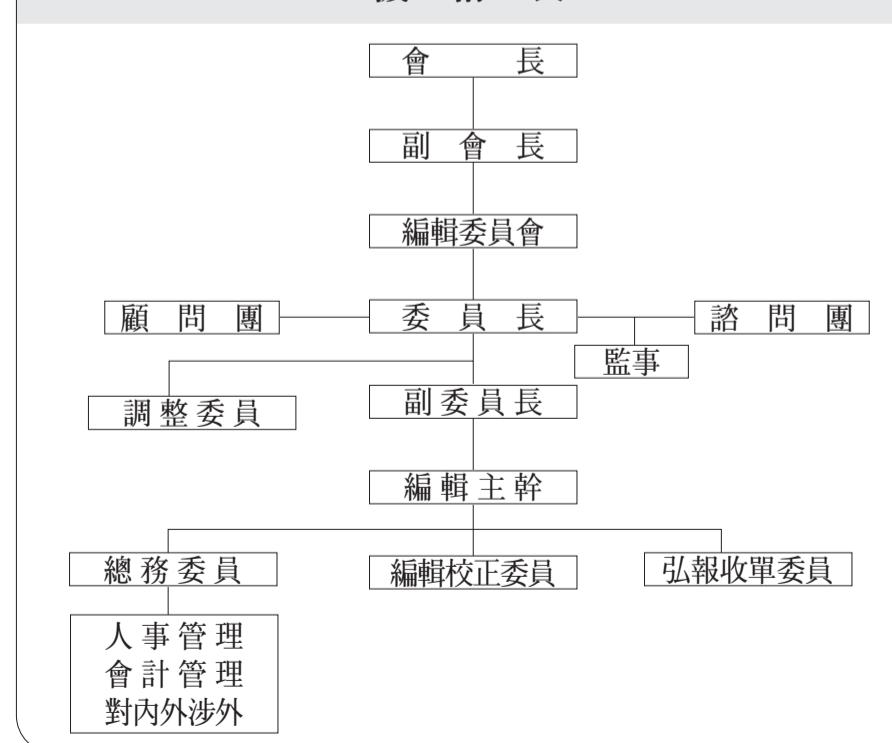
◇ 회장 전영규

지난 해 12월 8일 東海지구 종친회(회장 전 영규)에서는 많 은 회원이 參加한 가운데 장학 生 2명을 선발하여 30만원씩 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족의 발전으로 우리 全氏를 빛내고 나아가, 나라의 큰 기둥 되기를 기원하며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종친회 방문 종친

- 전태준 : 서울 염창동
- 전재혁 : 서울 목동
- 전재동 : 경기 고양시
- 전아갑 : 서울 불광동
- 전병진 : 경기 판야구
- 전용일 : 경기 광주시
- 전능신 : 인천 도화2동
- 전우탁 : 경기 남양주시
- 전영래 : 인천 부평구
- 전형원 : 서울 갈현동
- 전재곤 : 대구 진천동
- 전철연 : 서울 용두동
- 전명원 : 서울 상도3동
- 전귀표 : 서울 삼전동
- 전개표 : 서울 창동
- 전유복 : 경기 안양시
- 전동대 : 경기 과천시
- 전동명 : 경기 이천시
- 전동욱 : 서울 화곡6동
- 전현수 : 경기 성남시
- 김문도 : 부산 구포2동
- 전주일 : 서울 종암동
- 전영일 : 서울 항동
- 전성규 : 서울 구로3동
- 전희일 : 서울 신정4동

第4次 全氏大同譜編纂委員會 機 構 表



宗親會 발전기금 현성 감사합니다 <21>

금번 종친회 발전기금 조성계획에 따른 종친회의 중흥과 재도약의 기반 조성을 위한 높은 뜻에서 보내주신 현성금에 깊이 감사드리며 누수없이 잘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301-225668

예금주 : 전씨중앙종친회장 전영탁

현성 내용

단위: 원

년 월 일	성 명	금 액	비 고
10. 12 24	전 우 탁	10,000	031-576-3319
11. 1. 11	전 영 모	100,000	011-358-8008
1. 24	전 우 탁	10,000	
2. 28	전 우 탁	10,000	
3. 10	전 우 겸	50,000	대 의 원
3. 10	전 찬 주	100,000	"
계		280,000	

중보 성금 감사합니다 <14>

종친들께서 보내주신 구독료는 보다 나은 종보 제작에 활용되고 있으사오니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바랍니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701-243917

예금주 : 전씨중앙종친회장 전영탁

납입장소 : 전국 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납창구

구독성금 내용

단위: 만원

성 명	금액	입 금 은 행
전 우 탁	0.5	국 민 은 행
전 하 찬	10	
전 부 형	5	

성 명	금액	입 금 은 행
전 부 형	5	
전 우 탁	0.5	
계	21	

◆ 발전기금 현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회장단 : 100만원 이상
- ▲ 의장단 : 50만원 이상
- ▲ 대의원 : 10만원 이상
- ▲ 종인, 각파대종회, 지구종친회 : 성금액
- ▲ 종보 구독 성금 : 매년 종인 성금액
- ▲ 축발전광고금액 : 종인 성금액

발전기금 계좌 1006-301-225668 우리은행 전영탁

바/로/잡/습/니/다

- ◆ 2010년 12월 28일 발행 全氏宗報 제83호 4면 환성군 시향봉행 기사 제집사 분정 내용 중 “사준 全東旭”이 누락되었기 바로 잡습니다.
- ◆ 지난해 11월 서울시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全氏中央宗親會(전씨회관) 도로 주소를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3-1”로 재 지정하였기 바로 잡습니다.
- ◆ 2010년도 시향성금 현성자 명단 중 한천서원(二忠公) 추향란 위로 12번째 “전수연”을 “전씨성산백파 대종회”로 바로 잡습니다.

종친회 발전기금 현성 현황

2011년 2월 28일 현재

각 파 별 현황		지방 종친회 별 현황	
강원 (9지역)	정 선	65,380,000	강릉 3,000,000
	옥 천	31,650,000	원주 2,000,000
	옥 산	27,340,000	춘천 1,650,000
	죽 산	12,430,000	정선 1,000,000
	용 궁	11,700,000	영월 600,000
	완 산	7,500,000	철원 500,000
	성 산 백	7,020,000	동해 500,000
	평 강	7,410,000	강릉 연곡 300,000
	대구부 악회 청장회	5,500,000	고성 100,000
	성 산 군	6,900,000	파주 3,710,000
	감 천	2,550,000	인천 2,100,000
	천 안	2,710,000	포천 1,090,000
	기 장	2,150,000	이천 500,000
	동수회 (대구)	1,000,000	가평 330,000
경기 (8지역)	나 성	1,050,000	강화 300,000
	황 간	1,110,000	동부종친회 100,000
	계 름	800,000	연천종친회 100,000
	부 여	630,000	예천 3,000,000
	팔 거	1,500,000	고령 2,000,000
	대구개인택시종친회	504,900	영주 2,000,000
	함 창	300,000	봉화 1,835,000
	미 상	525,000	문경 1,500,000
	계	197,659,900	경주 1,800,000
			영덕 1,300,000
			대구 1,000,000
			울진 500,000
			상주 430,000
경북 (11지역)			안동 300,000
			마산 창원 1,500,000
			거창 1,000,000
			부산 1,000,000
경남 (4지역)			합천 500,000
			영동 1,600,000
			제천 1,000,000
			음성 500,000
충북 (5지역)	년도별 발전기금 현황		충주 500,000
	2004년	10,000,000	충북 보은 300,000
	2005년	84,885,000	
	2006년	94,210,000	
	2007년	26,209,900	서천 1,000,000
충남 (3지역)	2008년	8,150,000	대전 1,000,000
	2009년	12,400,000	금촌금산 100,000
	2010년	5,430,000	전북 무주 200,000
	2011년	120,000	계 43,745,000
총 계		₩241,404,900	

종 친 동 정

全賢玉 부의장 한국승강기 대학 이사취임

전씨 중앙종친회 대의원회 全賢玉 부의장이 한국승강기 대학 이사로 취임하여 대학 교육에 성과를 다하고 있다.

그리고 거창 문화원 자문위원에 추대되어 거창지역의 문화 발전과 또 대한노인회 거창부회장으로 추대되어 거창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광우 이사장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지난해 12월 2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전광우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은 신재생 에너지, 대체에너지 등 녹색성장 관련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국내 대기업 서너곳과 함께 해외



자원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상호 씨 강원 신용 보증재단 이사장에 취임

강원도는 지난 9월 25일 강원 신용 보증재단 제5대 이사장에 전상호 전 농협 강원 본부장을 임명하였다.

취임하는 전 이사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직원들과의 상견례만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주수 씨 춘천시 부시장 취임

전주수 춘천 부시장은 “형식적이거나 눈치보기식” 야근을 없애 집중력 있는 업무 분위기 조성을 통해 목표 성과 주의를 지향하겠다고 강조, 강원도와 춘천시에 근무하며 많은 현안 사업에 국비 지원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全喜宰 씨 통영 세무서장 승진 발령

1월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서 全喜宰 국장이 경남 통영 세무서장으로 승진 발령 되었다.

성실하고 착실하며 연

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공정한 세무 행정으로 칭찬이 자자한 앞날이 기대되는 세무 공무원이다.

전재희 의원 국회 문방위원장 선임

2008년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전재희 의원(광명을 3선)이 지난 1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로 내정 선임되었다. 이는 정병국 문방위원장이 문화부 장관으로 지명된데 따른 것으로 전의원이 내정 배경은 당내 3선의원 중 국회 상임위원장은 많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의원이기 때문이다.



전중희 회장 을지재단, 사재 37억원 기부

을지재단 전중희(82) 회장이 의학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사재 37억 원을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하계동 을지병원에 기증하면서 병원 발전기금 기증식을 가졌다.

전회장은 남편이자 을지재단 설립자 겸 명예회장인 박영하(84) 박사와

함께 2003년 현금 100억 원, 그리고 2007년 3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했다.



全遇謙 회장 생활문학 제14회 작품상 수상

경상북도 봉화지구 全遇謙 종친회장은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생활문학 제14회 수필부 ‘산머루’로 작품상을 받았다. 수필도 문학의 한 장르로서 수필다워야 수필로서의 진가를 공명 공감과 활기찬 생명력을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산머루’가 주는 수필로서의 멋과 맛이 크게 돋보인다.



全喜順 여사 삼성 효행상 대상 수상

지난 2월 17일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5회 삼성복지재단 삼성효행상 시상식에서 전희순여사(66세, 충남 당진)가 효행 대상을 수상했다.

전여사는 9남매의 장남인 남편과 결혼 44년 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전신 마비인 시동생을 보살폈다.



訃 音

全遇昇씨 별세

遇昇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4시경 76세를 1기로 영면하셨다.

빈소는 서울 강동구 소재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1월 14일 오전 7시에 하여 춘천시 경춘공원 묘원에 안장 되었다.

우리 중앙종친회에서는 조기를 보내고 遇學 상근부회장이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하였다.

전인봉 원장 한마음 한방요양원 개원

지난 해 10월 23일(토요일) 12시 전인봉 원장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33-1에서 한마음 한방요양원을 개원하고 지역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화 : 033) 344-9000
011-373-3681



全北烈 이사 옥천향교 전교 취임

지난해 10월 1일 전씨 중앙종친회 全北烈 이사가 沃川향교 제8대 전교로 전원 일치로 추대되어 취임하였다.

선출직 임기 3년의 전교로 취임하면서 충청북도 향교 재단 이사로 추천되어 옥천 뿐 아니라

충청북도 전도의 향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全孟熙 이사 21세기 한국인상 수상

지난해 12월 27일(월요일) 오후6시 한국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민주신문 창립 16주년 기념식 및 제9회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시상식에서 우리종친회 全孟熙 이사가 “21세기 한국인상”을 수상하는 명예를 가졌다.

孟熙 이사는 57여년 동안 법률분야에 종사, 화해와 조정에 의한 법률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경의선 철도변 평화 나무심기에 수십억원의 사재를 기증하는 등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남북京平친선축구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공적이 지대하여 “21세기 한국인상” 법률 문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전종만 선수

아시안 게임 럭비 대표팀 주장 일본에 설욕하고 금 따려 갑니다.



었다. 대학 3학년 때 국가 대표가 된 그는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고 당시 아시아 최강으로 군림하던 일본을 15인제와 7인제 모두 꺾고 금메달을 땄다.

“지옥훈련이 금메달을 딴 원동력이었죠. 그땐 다음날 아침이 두려워 눈을 감기가 싫었다”고 했다.

“럭비를 하며 ‘이건 인간이 할 운동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럭비를 안 했다면 네번이나 아시안 게임에 나가겠습니까? 원 없이 달리고 승리하고 오겠다”고 했다.

1994년 고려대에 진학했다. 그때도 럭비가 주목받는 순간은 오직 연세대와의 정기전 때 뿐이